오늘도 '#불(佛)스타그램' 하세요

SNS로 사진 · 영상 전문 포교하는 日사찰 '주목'

박정현 객원기자

SNS 인기가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옮겨가자 일본 불교계도 온라인 포교 방법에 변화를 주는 모양새다. 페이스북이 '글+사진+영상'이 혼합된 형태의 콘텐츠가 적극 활용됐다면, 인스타그램 · 유튜브는 보다 전문적으로 사진 · 영상 콘텐츠에 집중하는 추세다.

일본 언론 아사히신문은 7월 5일 SNS 계정을 통해 온라인 포교를 실시, 많은 팔로워를 확보한 일본 간사이 지역의 유명 사찰들을 소개했다. 해당 사찰들은 인스타그램 · 유튜브를 통한 SNS 포교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사시사철 변화하는 사찰의 풍경과 법회, 설법 등을 전문적인 사진 및 비디오로 적극 홍보하는 것.

교토에 위치한 정토종 본사 치오닌사(Chionin)는 올 4월 초부터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다. 3년 전 페이스북을 시작한 치오닌사는 젊은 불자들의 관심이 인스타그램으로 옮겨가자 즉각 이를 포교에 반영했다. 스님들은 동 트는 사원의 모습, 또는 사찰 보유 국보급 문화재 등을 사진으로 게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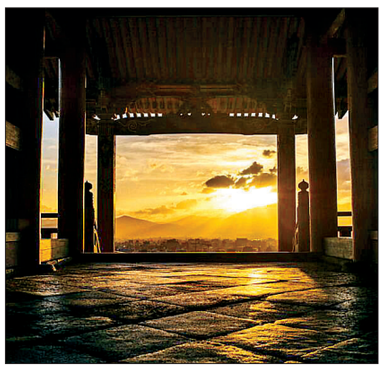
이케 구치 류호 스님은 "인스타그램 포교는 (절에서)불자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대신 우리가 직접 나서 절을 홍보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한 불교 관련 협회 사이코쿠 산 주산쇼 후다쇼카이(Saigoku San Jusan-sho Fudashokai)는 33개 사찰을 홍보하기 위한 인스타그램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 협회는 나라 현에 위치한 하스데라사(Hasedera), 싱가 현에 위치한 이시야마데라사 외 31개 관음사찰로 구성된다. 일본 서부의 사이코쿠 산 주산쇼로 불리는 고대 순례길에 위치해 있다.

작가와 계약… 경내 사진 게시
유튜브로 가상현실 영상 포교도
팔로워 16만명 보유한 사찰 등
새로운 포교방법으로 각광받아

협회는 각 사찰 특유의 풍경을 사진으로 홍보할 뿐 아니라 순례자들을 위해 곳곳의 포토 스팟(photo spots)도 추천한다. 33개 사찰 중 교토의 로카쿠도사에서 근무하는 종무원 료기 타나카(51)씨는 "방문객들이 천천히 넓은 경내를 돌아보며 (우리가 추천한)명소에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 등 SNS에 널리 알려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보다 전문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작가와 계약을 맺은 사찰도 있다. 교토에 위치한 키요미즈데라사는 작가 카즈야 수도(37) 씨가 찍은 사원의 모습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홍보한다. 키요미즈데라사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약 400장의 사진을 게시, 16만7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2016년에는 해당 사진들을 모아 사진집을 출판하기도 했다.



전문 사진작가 카즈야 수도가 촬영한 키요즈미데라사(寺)의 모습. 키요즈미데라사는 전문 작가를 고용해 경내 모습을 촬영,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있다. 사진출처=아사히신문

키요미즈데라사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를 맡고 있는 오이니 오니시(40) 스님은 사찰에서 나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이 불자들이 더욱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한다. 현대인들은 풍경이 좋은 곳에 가면 사진을 찍기 바쁜데 이 역할을 사찰이 대신한다는 것.

"불자들이 절에 방문하면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간직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림으로써 불자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기도를 위한 순간에 몰입하길 바랍니다."

한편 또 다른 사찰은 유튜브를 통한 영상 포교에 집중하고 있다.

엔랴쿠지사에 본부를 둔 시가 현의 텐다이 불교 학교는 지난해 11월 유튜브에 12분 분량의 VR(가상현실)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가부키 배우 이치카와 이노 노스케가 가이드로 출연, 사원 내 8개 스팟을 소개한다. 이는 1만7000번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해 화제를 모았다.

키센 호시노 텐다이 학교 교장은 "사람들이 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자는)점점 줄어들 것"이라며 "SNS 및 영상과 같은 새로운 콘텐츠를 사용해 적극적으로 온라인 포교 전략을 구현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성추문' 캐나다 불교지도자, 대중 앞 참회

복수 여성 성추행 혐의로 캐나다 불교계 공분

성추행 혐의를 받은 캐나다 할리팩스 지역의 유명 불교 지도자 사경 미팜 린포체(Shakhong Mipham Rinpoche)가 결국 사과했다. 지난달 미팜이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불교단체의 수사가 시작되는 등 캐나다 불교계의 분노가 빗발친 바 있다.

캐나다 언론 글로벌뉴스는 7월 10일(현지시간) 성추문을 일으킨 미팜이 샴발라 불교 커뮤니티 전역을 휩쓴 '고통, 혼란과 분노'에 대해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미팜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나로 인해 불교 공동체가 겪게 된 고통에 큰 책임을 느낀다"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소임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소외감을 느낀 우리 사회 여성들을 비롯한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 성찰의 시간 동안 내 언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게 돌아볼 것"이라고 반성했다.

미팜은 할리팩스에 위치한 종교단체 샴발라 불교 커뮤니티의 수장이다. 티베트 불교에 근원한 샴발라 불교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약 200개 명상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큰 서부 불교 운동 중 하나다.


성추문을 일으킨 사경 미팜 린포체(사진 왼쪽)가 대중에게 사과했다. 사진출처=해럴드뉴스

미팜의 성추행 의혹은 샴발라 커뮤니티 회원이었던 안드레아 윈(Andrea Winn)의 폭로로 불거졌다.

안드레아가 공개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익명 여성은 "미팜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적 만족을 충족시킬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 수행원들을 이용했다"고 고발했다. 여성들은 미팜이 수업 또는 행사 동안 여성들의 신분을 파악하고 접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행위를 하기 위해 그의 수행원에게 점찍어둔 여성을 데려올 것을 강요했다는 것. 여성들은 이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고 전해진다. 다만 현재까지 법정에서 구체적 혐의는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불상 의복으로 만나는 부처님

日, 불상 의복 재현한 패션쇼 강좌 열어

불상과 불화로만 보던 가사와 장엄구를 직접 재현하는 '불상 패션쇼'가 열렸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7월 6일 패션쇼와 강좌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지난달 21일에 도쿄의 중심 요요기의 문화복장학원에서 열린 이 행사는 나라의 코후쿠지(興福) 중금당 재건을 기념해 열리는 도쿄문화강좌의 일환이다. 패션쇼와 함께 '복장으로 배우는 불상의 종류와 형태'라는 주제로 아이치현 예술대학 야마자키 타카노(山崎隆之) 명예교수가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문화복장학원의 학생들은 직접 재현한 색색의 의복과 장엄을 몸에 걸치고 런웨이에 나섰다. 몇몇 의상은 런웨이 위에서 직접 착용하면서 그 구조를 보여주었다. 패션쇼의 테마는 크게 여래 · 보살 · 천신의 세 종류였다.

패션쇼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천신의 의복이었다. 야마자키 교수는 "천신의 의복은 고대 인도 귀족들의 복장을 본따 묘사되었기에 장신구가 화려하고, 가짓수도 많다"고 설명했다. 장신구는 물론, 신발이나 갑옷과 같은 화려한 의복이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런웨이에서 직접 옷을 착용하는 모델. 사진출처=아사히신문

패션쇼와 강좌가 끝나고 열린 기념 촬영에서 참석자들이 모델들이 입고 있는 옷들을 직접 만지고 관찰하면서 오랫동안 장사진을 이뤘다.

아마자키 교수는 "얼핏 보면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인도의 전통 의상인 사리(sari)와 같이 큰 천을 몸에 감는 형태"라며 "여래에서 보살, 천신의 순으로 그 의복의 화려함과 구조가 다양해진다. 불교의 수행과 깨달음의 단계를 생각해 볼 때, 여래의 의복이 가장 단순한 것은 그만큼 집착과 탐욕이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 뜻을 설명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사찰 공양물, 이웃에게 회향합니다"

일본 모임 '절 반찬 클럽'
소외이웃 돕고자 캠페인

절에 들어온 공양물을 다시 이웃에게 베푸는 모임이 있어 화제다.

지난 7월 4일 일본 '후쿠이신문'은 이 특별한 보시행을 실천하는 '절 반찬 클럽(おてらおやつクラブ)'을 특별히 소개했다.

2014년 나라현 안요지(安養寺)의 주지, 마츠시마 세이로(43) 스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모임은 지금까지 일본 전국에 874개소의 사찰, 364개의 사회단체가 참가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마츠시마 스님은 "사찰이란 무엇을 위한 장소인가? 출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일본에서 아동 6명중 1명은 경제적으로 소외받고 있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려는 뜻에서 시작했다"며 활동의 계기를 설명했다.




이웃들과 나누기전 법당에 쌓여있는 공양물(사진 왼쪽)과 응원메시지 등이 담긴 박스 내용물. 사진출처=절 반찬 클럽 공식홈페이지

처음에는 사찰에 신도들이 공양올린 음식이나 과일 등의 식료품을 지역의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에 전달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마츠시마 스님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내린 음식 등에는 부처님의 가피가 담겼기에 '부처님께 내려 받았다'는 말을 쓴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절에서 다 소비하기 힘든 공양물들을 모아, 신도들이 알음알음으로 어려운 가정을 찾아 전달했다"고 첫 시작을 설명했다.

공양물을 다시 베푼다는 소식을 들은 도반스님들과 다른 사찰들이 참여하면서, 지원활동에 힘이 붙기 시작했다. 좀 더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결손가정을 돕는 단체와 연계하면서 활동의 폭도 넓어졌고, 전달하는 품목도 일상용품, 도서 등으로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활동이 알려지면서 각지에 지부와 설명회가 열렸다. 지난 7월 3일 후쿠이현 죠젠지에서 열린 설명회를 담당한 아사쿠라 츠네노리(42) 씨는 "현내 불교계에서도 '절 반찬 클럽'의 활동에 관심이 뜨겁다. 후쿠이현은 일본에서도 사찰이 특히 많은 현이기에 더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절 반찬 클럽'의 사무국장 카스라 쵸군(40) 씨는 "지역과의 교류가 늘어나고, 직접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1회라도 좋으니 공양물을 나누는 활동을 하자는 것이 본 활동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사찰과 종파 간의 화합,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생겨나는 장이자,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보시행"이라고 강조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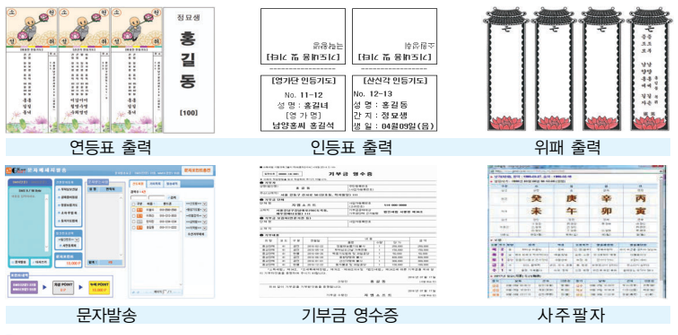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 급 형 민 속 죽 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천지운명
건강 120세
대구 법당 이온식 특별 할인 판매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30 페이지
정가 150,000원
※ 스님 특별우대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 효소(발효) 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가 15만원인데
50% 할인하여 특별 판매 합니다.
₩75,000원
기회는 딱 한 번 많이 주문해주세요!!
연세 많은 분들에게 최고 선물입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 분, 병고에 시달리고 계시는분에게 최고 선물입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꼭 필요한 책자

천지운명 건강 120세

1 어떠한 병이라도 민간요법으로 치유할수 있음을 사실 그대로 이 책자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2 특히 기관지 천식, 심장병, 피부병에 관한 민간요법이 탁월합니다.
3 명절 선물용으로 최고로 실속있는 책자이며, 어느 집이고 꼭 필요한 민간요법서 입니다.

H·P 010-4496-6060, 010-6674-1356
입금계좌 : 농협 170972-51-038226 (예금주 : 장지엽)